

박봉으로 고생하던 공무원들에게 미안했다

구본호(具本湖)

〈1971~74 수석연구원 ·
1975~80 부원장 · 1987~92 원장 ·
전 울산대학교 총장〉

1970년 연말이었다. 연세대학교 한기춘 교수로부터 'KDI라는 연구소가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귀국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한 교수는 내 주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당시 청와대의 정소영 경제수석이 나와 대학 동기라는 사실과 나의 형님도 그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교수는 이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닐 거라는 자기 의견까지 편지에 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꼭 한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대학교수라는 안정된 직장도 있었고, 아이들 교육도 그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김만제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1971년 5월쯤이라고 기억된다. 뉴욕에 출장을 와 있는데 스케줄이 빡빡해서 내 근무처가 있는 애틀랜타까지 갈 수 없어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구 박사를

KDI에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느냐”고 했다. 전화를 받은 나는, 나를 귀국시키고 싶어하셨던 형님이 한 교수의 말을 듣고 정소영 수석과 상의를 했고, 정소영 수석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김만재 원장이 나를 만나 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김 원장과 생면부지였다. 그래서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뒤 같지 안 같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 추측이 맞다면 정소영 수석에게 부탁을 했을 형님과 정 수석의 체면도 세워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김 원장과 만날 일정을 약속해 놓고 애틀랜타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김 원장의 첫 인상은 아주 좋았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과 저녁까지 함께 먹으며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고, 함께 하는 동안 나는 이만한 사람이면 한국에 나가서 그 밑에서 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김 원장은 한국의 근황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가난했던 옛날과는 달라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모처럼 발전 궤도에 오른 나라 경제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실물경제와 현대경제를 연구한 박사들이 나와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는 미국과 한국 간 직항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 한번 나오려면 동경까지 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거기다 항공료도 비싸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고국에 다녀올 수가 없었다. 때문에 친지들의 편지와 미국 신문을 통해 단편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을 뿐,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1950년대 말이나 1960년대 초의 가난했던 조국에 대한 기억만 남아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미국 유학을 떠난 1950년대의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70달러 수준으로 아주 가난했고,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의 순위를 꼽으면 몇 번째 안에 드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처럼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고

도성장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수치를 열거하며 설명하는 김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KDI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꼭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1971년 12월 KDI 수석연구원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김만재 원장의 말처럼 우리 경제는 놀랍게 발전하고 있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공무원, 일반 국민들까지 온 나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상대하는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희생적인 근무 자세는 많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들이 정말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공무원은 박봉이었다. 심지어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해 (1970년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했다) 점심시간이면 슬그머니 사무실을 나와 경복궁 쪽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도 있었다. 이처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그때 우리 KDI 수석연구원들은 과분한 보수를 받고 있어 이런 공무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생각을 한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수석연구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에 전념했다. 그리고 정부를 위해 자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였으며, 때로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신해 주었다.

내가 KDI에 와서 일을 했던 1970년대의 분위기는 이러했다. 나는 1975년부터 5년간은 부원장으로 일을 했고, 1980년 새로 발족한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소장으로서 갔다가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지만 1992년에는 원장으로 다시 돌아올 만큼 KDI와는 인연이 깊었다.

나는 지금도 내 생애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기를 KDI에서 연구를 하던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실증적 이론으로 이끌고 뒷받침한 KDI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성공적인 한국 경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